

목차

1. **강연과 함께하는 피아노연주회: “북한 음악으로 본 북한문화 읽기”**
김철웅 (백제예술대학교) - 6월 20일 (수) / 19:00 ~ 20:00
2. **강연: “북한 교통의 현실 - 해결의 돌파구는?” -**
안병민 (한국교통연구원) - 6월21일 (목) / 13:45~15:00
3. **강연: “북한 경제의 창 -시장”**
임수호 (삼성경제연구소) - 6월21일 (목) / 15:15~16:30
4. **탈북자 증언: “지울 수 없는 28년 간의 감옥살이”**
김혜숙 (북한민주화운동본부) - 6월21일 (목) / 16:45~17:45
5. **탈북자증언: “2012년 김정은 정권 출범과 북한 내부실태”**
김흥광 (NK지식연대) - 6월21일 (목) / 18:45~20:00
6. **강연: 북한, 결국 변할 것인가? 김정은 정권의 강한 현상유지 편향”**
한병진 (계명대학교) - 6월22일 (금) / 16:30~17:45

<< 강연과 함께하는 피아노연주회: “북한 음악으로 본 북한문화 읽기” >>

김철웅 (백제예술대학교)

요약 :

탈북자 김철웅 씨는 8 살 때 평양음악대학에 들어가 피아노를 전공하였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 금지된 곡을 연습하다 국가안전보위부에 걸리게 된 일을 계기로, 음악에 대한 자유를 찾아 2002 년 한국으로 탈북했습니다. 김철웅 씨는 북한의 음악과 문화, 엘리트 음악교육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 하며 그와 관련된 곡들을 연주하였습니다. 그는 또한 통일을 위한 경제, 정치적 합의에 앞서 문화적 통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북한문화에 대한 남한사회의 이해를 당부하였습니다.

내용 :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북한 사람들은 어떤 음악을 만들고, 듣고, 즐기고 있는지에 관한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피아니스트처럼 안 생겼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피아니스트라는 것을 인지시키기 위해서 먼저 한 곡 연주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민족의 대표적인 곡인데요, 남북한 사람들이 만났을 때 무슨 곡을 가장 많이 부를까요? 바로 아리랑입니다. 이 노래는 남북한에서 대조적으로 불립니다. 북한에서는 7-8 살 꼬마들이 줄넘기를 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지만, 남한에서는 노래방서 아리랑을 부르면 정신병자 취급을 받죠. 북한에서 아리랑을 피아노 버전으로 만들었는데, 북한 버전으로 연주의 첫 막을 열겠습니다.

<< 아리랑, 북한편곡 >>

우선 제가 왜 평양에서 공부를 하고 왜 서울 여기에 와서 연주하고 있는지 말해보겠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서울대 음대와 같은 평양음대 출신입니다. 그 학교를 8 살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보니 천재피아니스트, 신동이라 말씀하시는데 정말 부당스럽습니다. 그것은 북한의 음악교육체계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대학교를 일찍 갈 수 있었던 것 입니다. 8 살에 대학을 들어가고 14 년 동안 학부과정을 마치고, 유학을 갔다 왔습니다.

제가 탈북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북한의 편파적인 음악제도 때문입니다. 자유로운 음악을 찾아서 탈북하게 되었습니다. 유학한 후 북한의 교향악단에 있을 때, 좋아하는 여자를 위해 썼던 곡이 리차드 클레이더만의 ‘가을의 속삭임’이란 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곡은 북한의 금지곡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북한만을 제외한 모든 국가의 대중음악이 철저히 금지곡입니다. 음악을 전공 안 한 사람은 외국 곡을 들을 수 없고, 음악을 전공한 사람도 클래식에 한해서만 국가안전보위부 허락 하에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 곡을 러시아에서 처음 듣고, 연습만 했는데도 보위부에서 취조를 당하였습니다. 그리하여 10 페이지 가량 시말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의 처벌은 운이 좋은 경우입니다. 그리고는 3 일 동안 먹지도 자지도 않고 생각했습니다. ‘피아노 하나만 바라보고 사는 피아니스트가 피아노를 쳤다고 시말서를 쓴 나라에서 내가 피아니스트로 살 수 있겠나..’ 제가 치고 싶은, 부르고 싶은, 듣고 싶은 음악을 하는 피아니스트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탈북을 시도했고 2002 년도에 한국에 입국하였습니다. 제게 탈북 계기를 만들어준 곡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리차드 클레이더만의 가을의 속삭임’ 입니다.

<< 가을의 속삭임, by 리차드 클레이더만 >>

-북한의 음악교육? 북한의 음악교육은 1958 년 음악교육법을 입법, 결정하여 1972 년부터 시행되면서 제도적으로 예체능 조기교육이 실시되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어떤 악기던지, 어떤 음악이던지, 비록 그것이 서양악기라 하더라도, 조선음악에 복종하고 흡수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음악을 공부하기 위해서 총 74 개의 과목을 소화해야 하는데, 그 중 조선장단-한국음악을 2 년 동안 배워야 하고, 피아노를 전공하더라도 화성악, 복성학, 악보편성, 발레와 한국무용까지 필수로 배워야 합니다. 연주자로서의 자세의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즉 교육으로서는 자본주의체제 내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이윤이 날 수 없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내 학생 한사람에게 전공 음악교수, 국어교사, 수학교사, 조직생활 담당교사 등 교사 4 명이 붙습니다. 또한 평양음대에 들어가게 되면, 북한에서 상상할 수 없는 특혜를 줍니다. 1) 군복무가 면제이고, 2)모든 사회활동에 일체 동원이 안 됩니다. 그 유명한 아리랑 축전 때도 평양음악대 학생은 한 명도 동원되지 않았습니다. 3) 또한, 평양에서 공연되는 모든 음악회는 공짜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학교만 들어가면 성공의 길이 보장 되는가?** 아닙니다. 당시 1980년대 경쟁률이 전국에서 5000명이 오디션 봐서 9명 뽑았으니까 670:1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쟁률을 뚫고 들어가도 거기서 다 졸업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9명으로 시작해서 점차 학생수가 늘어납니다. 지방의 중학교, 고등학교, 지방예술대 출신 학생들이 평양음대로 뽑혀 올라옵니다. 대학교 학부 과정에서는 학생들의 정원을 줄입니다. 피아노에서 만점을 받았더라도 김일성혁명교육 점수가 낮으면 퇴학입니다. 북한은 교육마저도 계획적이고, 국가가 개인을 선택하는 시스템이 정착되어 있습니다. 국가에 선택 받지 못한 자는 일반인이 되는데, 사람들은 일반인이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렇게 북한에서는 선동, 선전을 체계적으로 이용해 엘리트교육을 강하게 시킵니다.

-**북한의 클래식?** 많은 분들이 북한의 클래식 수준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저는 2009년 4월 16일 뉴욕 카네기홀에서 연주할 기회가 있었는데, 4월 18일 뉴욕에서 뉴욕필하모니 오케스트라 단장인 로린 마젤과 저녁을 같이 먹었습니다. 그때 로린 마젤이 북한 연주자들의 실력을 칭찬하고 인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제 생각엔 북한 음악은 테크닉 차원에서는 세계적이지만, 음악이 너무 경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앙상블이나 테크닉만을 강조하여, 편파적 교육을 당하고 있고, 여러 음악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보니 연주에서 편안하고 유연한 부분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 점만 보완되면 북한 클래식도 세계적 클래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피아노를 어디서부터 배우나?** 세계에서 아직 바이엘이나 체르니보다 더 좋은 교본이 나오지 않았기에 북한에서도 그대로 씁니다. 하지만 북한만의 연습곡도 따로 있고 그것을 학생들에게 세뇌시킵니다. 이를테면 베토벤 곡을 1곡 치면 북한 곡 2곡을 쳐야 합니다. 그런 곡 중 하나가 제가 지금 들려드릴 노래입니다. 여러분이 소나티네를 쳤을 때 저는 이 노래를 치면서 소나티네를 쳤습니다.

<< 혁명곡 노래, 북한곡 >>

북한에서 클래식 곡은 낭만시기까지 허용이 됩니다. 현대곡은 작곡가에 따라 다릅니다. 라흐마니노프곡은 미국에 망명했다는 이유로 금지당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해금되었습니다. 북한도 어쩔 수 없이 변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눈물젖은 두만강이란 노래도 남한의 유행가라는 이유로 못 부르게 했습니다만 지금은 부를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문화적 욕구에 북한 정권도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이렇게 조금씩 북한은 바뀌고 있습니다.

이번에 연주 할 곡은 쇼팽의 녹턴입니다. 탈북 이후 기자와 인터뷰에서 기자가, 피아니스트라는 영화를 봤냐고 물어봤습니다. 그 영화를 봤을 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내내 울었습니다. 이럴 수 있나 할 정도로 그 현실이 너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영화 피아니스트 첫 장면에 나왔던 음악, 쇼팽 녹턴 중 20번을 연주하겠습니다.

<< 녹턴 20번, by 쇼팽 >>

다음 곡은 북한 특유의, 북한만이 만들 수 있는 그런 곡을 연주해볼까 합니다. 이 곡의 작곡가는 북한 내에서 굉장히 유명한데, 북한 내 100곡중 70곡은 이 분이 만드셨습니다. 바로 이면상 선생님입니다. 이분은 함경남도 출신인데 일본에 건너갔다 남한에 와서 독립을 맞이하고 월북한 지식인들 중 한 명입니다. 북한음악대학 총장을 지니고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부위원장도 역임하였습니다. 지금 들려 드릴 노래 제목은 환희의 노래인데, 독립광장의 환희를 표현한 작품입니다. 첫 번째는 독립광장의 웅장함이 있다면, 두 번째는 일제강점기의 암울한 슬픈 장면이, 세 번째는 새나라 조국에 대한 희망을 그리며 템포가 빨라집니다. 북한의 대표적 창작곡이기 때문에 이 곡을 선택해보았습니다.

<< 환희의 노래, by 이면상 >>

이런 곡들을 북한에서 치고, 배우고, 듣고, 만듭니다. 지금까지 북한 음악을 통한 북한 문화워기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보았는데, 이런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통일에 필요한 것이 정치, 경제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문화통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회, 문화통합이 될 때, 사람들이 살고, 그 사람들의 문화가 합쳐질 때가 진정한 통일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문화를 알려주는 것이 통일을 준비할 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이런 노래들을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들려 드릴 곡은 제가 한민족의 과거, 현재, 미래를 생각하면서 직접 편곡한 '아리랑 소나타'입니다. 감사합니다.

<< 아리랑 소나타, by 김철웅 >>

<< 강연: “북한 교통의 현실 - 해결의 돌파구는?”>>

안병민 (한국교통연구원)

요약: 한국교통연구원 북한연구센터장 안병민씨는 북한 교통인프라 개발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지원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남북한 연결 교통 인프라사업은 북한에 일방적인 지원이 아니라 남북한간의 공생을 위한 기초투자이며, 국제적으로 공인된 대륙연결교통망 현대화 사업이라는 인식 전환과 함께, 현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북한 교통인프라의 정비를 위한 (가칭)‘한반도교통발전종합계획’과 같은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합니다

내용: 한국교통연구원 북한연구센터장 안병민 박사는 북한의 열악한 사회간접자본을 보여주며, 인프라 개발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안병민 박사는 북한은 산악지대가 많기 때문에 화물 수송의 90퍼센트가 철도를 기반으로 하는 주철종도형(柱鐵從道型) 이라고 설명하면서, 매년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인민 경제 4대 선행으로서 철도를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전반적으로 철도 시설에 상당한 노후화가 진행되었으며, 평균 속도가 20-40Km/h수준으로 운행속도도 낮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노선의 98퍼센트가 단선으로 구축되었으며, 주요 철도 산업 시설은 대부분 자체 설비로 제작이 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그 밖에 특수화차나 주요 전기기재, 엔진 등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안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최근 북한의 도로는 철도의 보조적인 기능을 수행하며 주로 단거리 운송에 이용되고 있으며, 철도 고장이 잦기 때문에 북한은 도로 수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그동안의 철도 위주 교통 정책에서 탈피하고 있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공항 및 항공운영에 관하여 북한은 공군사령부 통제하에 조선민항총국이 관장하고 있으며, 민용 항공총국 아래 지방공항을 관장하는 지방공항관리사무소(순안, 청진, 선덕 공항)를 두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안병민 교수는 현재 국외 취항 외국여객기는 평양 순안국제공항에서만 운행되고 있으며, 국내선 주요 공항은 순천, 개천, 삼지연, 선덕, 어랑, 갈마공항 등이 있다고 설명하며, 과거에는 주1회 정도 운항되었으나, 현재 부정기적 운항노선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표적인 북한 국적항공사는 고려항공(Air Koryo)이 있고, 북한에 주재하고 있는 외국항공사는 러시아의 아에로플로트항공(Aeroflot)과 중국북방항공사(CAAC)가 있다고 말하며, 현재 북한의 공항은 총 30~40개 정도로 파악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공항은 군사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안 교수는 최근 북한과 중국 간의 경제 협력 수준은 양국의 국교 수립 이래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 하면서 특히 2009년 10월 원자바오 총리의 방북과 2010년 이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4차례 연이은 방중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북한·중국 간 경제협력은 단순 무역거래

를 넘어서 북한-중국-러시아 간 개발협력 차원의 중장기적 프로젝트로 확대발전을 의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통 인프라는 투자규모가 막대할 뿐만 아니라 자본의 회임기간이 길어 단기간에 수익성 창출이 곤란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안병민 박사는 북한 교통인프라 개발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정권은 그 동안 남북 및 국제관계를 한쪽에서는 갈등관계를, 한쪽에서는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견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이중적인 탈냉전기 생존전략은 교통인프라사업과 같은 중장기 사업 추진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남북한 연결 교통 인프라사업은 북한에 일방적인 지원이 아니라 남북한간의 공생을 위한 기초투자이며, 국제적으로 공인된 대륙연결교통망 현대화 사업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안 교수는 북한 교통인프라 지원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했습니다. 북한 교통인프라 지원 및 협력에서, 기존의 합의된 내용을 새로운 틀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배열시킬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북한 교통인프라 지원은 기존의 남북간 간선축을 최대한 활용하여 남북 산업단지간의 접근성 강화 및 배후 수송로 확보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 했습니다. 또한 우리 기업의 북한지역 진출시 기업의 경쟁력 구축을 위해 원료 산지 및 제품 수요지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연계교통망 구축을 우선시해야 하며, 현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북한 교통인프라의 정비를 위한 (가칭)‘한반도교통발전종합계획’과 같은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연: “북한 경제의 창 -시장”>>

임수호 (삼성경제연구소)

요약: 삼성경제연구소의 임수호 연구원은 점차 변하고 있는 북한경제에 관해서 강연하였습니다. 그는 우선 현 북한경제에 관해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를 풀고, 북한경제를 구조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이후 북한 시장을 5 개의 분야로 나누어 현황을 훑어본 후 북한의 식량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한경제의 미래에 대해 시장사회주의로 점진적으로 나아갈 것이라 전망하였습니다.

내용:

<1> 북한경제의 현실과 주민들의 삶을 ‘시장화’(Marketization)의 관점에서 조명

임수호 연구원은 북한시장에 관해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3 가지의 오해를 언급하며 강연을 시작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북한의 시장을 많은 사람들이 단순한 재래시장과 같은 곳으로 생각하지만, 시장은 물리적 유통 공간뿐만 아니라 가격 메커니즘 즉 수급에 따라 경제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을 일컫는다고 말하였습니다. 둘째로, 북한에는 암시장만 존재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북한에서 시장이 합법화 된 지는 어느덧 10 년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다만 합법화된 영역보다 시장이 더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한경제에서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고 오해하는데, 실제로는 식량 소비재 부분이 시장에 확산된 정도는 50 퍼센트를 넘어가지 않고, 경제가 소비재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기에 아직 시장이 차지하는 부분이 30 퍼센트가 넘어가지 않는다고 언급하였습니다.

<2> 북한경제의 구조

이어서 임수호 연구원은 북한경제의 시스템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접근하였습니다. 그는 북한의 경제구조를 북한의 집권당인 조선노동당이 운영하는 특권경제, 내각이 운영하는 인민경제, 그리고 이외의 주변부로 존재하는 시장경제 등 3 대 권역과 6 대 섹터로 구분하고 각 경제의 특징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그는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은행은 북한경제의 규모를 대략 25 조로 추정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통계에 잡히지 않은 북한 경제의 규모는 더 클 것이라고 예상하였습니다. 한편 임수호 연구원은 북한 경제 계획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선군경제노선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선군경제노선은 인민경제나 시장경제에서 나오는 가치를 수탈해서 당경제나 군수경제같은 특권경제에 우선 투자하는 것을 골자로 하지만, 임수호 연구원은 특권경제에서 나오는 이윤이 반대 방향으로 분배가 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시했습니다.

<3> 북한의 시장

이후 임수호 연구원은 북한의 시장을 농업분야, 수공업분야, 사금융과 임가공분야, 무역분야, 개인사업 분야로 나누어 북한의 시장화 양상을 소개했습니다.

1) 농업분야: 농업분야에 관해서, 그는 사적 경작을 조명했습니다. 텃밭, 부업밭, 땀기밭의 이름으로 나타난 사유화 특성을 지닌 농지가 북한 사회 내 만연해졌는데, 이러한 농지는 북한 농지의 10 퍼센트를 차지하지만 생산량은 전체의 20-30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2) 수공업분야: 북한에서는 ‘가내작업장이 고양이뿔 빼고 다 만든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가내작업반(가내수공업)이 활성화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1983 년도부터 합법화 된 가내작업반은

90년대 경제난을 겪으면서 활성화되었고 2002년 시장에서 자재를 살 수 있게 되면서 가내작업반의 규모가 공장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3) 사금융, 임가공 분야: 임수호 연구원은 북한사회 내 돈주의 등장에 대해서 특히 강조하였습니다. 돈주란 어느 정도 자본(일반적으로 1만달러 이상)을 가진 개인을 일컫는데, 돈주들이 초기에는 일반인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사채형식으로 발달하였다가 2000년대 들어와서 국영기업에게 자본을 대는 방식으로 투자의 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2009년도에 발생한 화폐개혁은 이러한 돈주들의 자본을 회수하기 위해 실시되었지만, 국영기업이 자본의 부족으로 운영될 수 없게 되자, 당국은 몇 달 안에 실패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북한에서는 당국이 돈주의 존재를 묵인하면서, 사적영역이 국영기업으로 침투해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4) 무역 분야: 북한 시장 중에서 무역 분야의 규모가 가장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과 중국 사이에서 개인적 밀수가 성행하고 있는데 2009년부터 단속이 강화되어 지금은 밀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수를 통한 중국산 제품이 북한 시장 내에 8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대중무역 사이에서 북한 무역체제의 허점을 노려 분식회계를 통해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광범위하게 성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5) 개인사업: 개인이 당국에 등록을 하고 돈을 내기만 하면 북한 내에서 합법적으로 식당, 노래방, 당구장 등을 운영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불법적 산업도 역시 존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2009년 후반 북한 공장의 유희차량을 빌려 여객운수업, 화물운수업을 하는 “서비차”는 열악한 북한 교통시스템에서 사람과 물건을 적재적소에 운반해, 북한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습니다.

<4> 북한의 식량시장

이후 임수호 연구원은 식량난에도 불구하고 대량 아사자가 발생하지 않는 이유에 집중하였습니다. 그가 보여준 공식적 통계자료에 의하면, 식량의 수급이 맞지 않음에도 90년대와 같이 대량 아사자가 발생하지 않는데, 이는 비공식적 시장에서 생산되거나 밀수되는 식량이 상당량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90년대 배급제가 붕괴했을 때는 사람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서 아사했지만, 요즘은 사람들의 의식도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5> 시장사회주의로의 점진적 전환

마지막으로 임수호 연구원은 경제와 관련하여 북한 체제의 미래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그는 북한 내부에서 시장과 사유화가 점차 확대되어가고, 돈주가 국영공장의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실을 판단해 볼 때 시장화 현상은 역전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미 북한 관료들이 시장에 의존하며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없어지기는 힘들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급(急) 자본주의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습니다. 그는 북한이 시장의 점진적 확대를 거쳐 시장사회주의의 방향으로 갈 것이라 예상하며 강의를 마무리하였습니다.

<<탈북자 증언 "지울 수 없는 28년간의 감옥살이">>

김혜숙 (북한민주화운동본부)

요약: 2008년 두만강을 건너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 김혜숙씨는 28년에 걸친 징역살이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을 보여주며 북한 정치범수용소 내에 만연한 폭력과 강제노동, 공개처형 등의 실태를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용:

지난 6월 21일, 북한 정치범수용소 최장기수인 탈북자 김혜숙씨는 28년 동안의 징역살이 경험을 통해 인권이 유린되고 있는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실태를 생생하게 증언했습니다. 그녀는 평양시 모란봉구역 정송동에서 태어나 평양 등매고등중학교에 다니다가 자신의 할아버지가 월남했다는 이유로 연좌제에 걸려 제 18호 북창관리소로 수감되었습니다. 김혜숙씨는 탈북한 지 3년이 지난 지금도 정치범수용소의 28년 동안의 기억은 아직도 그녀를 괴롭히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탈북자 김혜숙씨는 정치범수용소 일대 지도를 비롯,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들을 보여주며 자신이 수용소에 겪은 인권 탄압 사례들 강제노동, 구타, 굶주림이 횡행했던 상황 등을 증언하였습니다. 김 씨는 "제일 많이 먹었다고 기억나는 것은 도토리 나뭇잎 잎사귀"라며 "하루 한끼 먹으면 잘 먹는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이주민 학교를 졸업한 후 심산 갭에서 석탄을 탄차에 실어 나르는 채탄공으로 배치를 받아 하루 16시간내지 18시간 동안 일하며 노역을 견뎌야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그녀의 어머니와 오빠는 정치범 수용소에서 강제 노동을 하던 중 사망했으며, 2003년에는 대홍수로 집이 떠내려가 어린 딸과 아들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씨는 2005년에 국경경비대에 팔려 중국으로 갔다가 2008년 복송되었으나, 다시 탈출한 경유를 증언했습니다.

김씨는 1990년대 김일성 사망 이후 체제 공고화를 위해 자행된 북한 공무원들의 대규모 숙청에 대해서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정치범수용소에서는 공개 처형 집행 시 정치범수용소 내 모든 죄수들이 총살 장면을 지켜봐야 한다고 증언하면서, 그들이 정치범수용소에 끌려와 사형에 처해지는 모습을 직접 지켜보면서 그녀는 자신의 처신에 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28년이 지났지만 잔혹한 정치범수용소의 모습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권에 대한 개념과 의식이 전혀 없었으며 이에 대한 어떠한 희망도 가질 수 없었던 정치범수용소의 인권 유린 상황이 앞으로 개선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점을 제기하면서, 김정은 체제 하에서 그의 독재는 김정일 체제 때보다 더 훨씬 잔혹해 질 것이라 예상된다고 주장했습니다.

<< 탈북자증언: “2012년 김정은 정권 출범과 북한 내부실태”>>

김흥광 (NK 지식연대)

요약 :

김흥광 NK 지식연대 대표는 김정은이 김일성의 후광을 이용해서 북한정권을 안정적으로 이양 받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북한체제를 버티고 있는 부분들(계급투쟁)과 변화를 추동하는 내적, 외적 요인들(중국, 시장)에 의해서 북한체제는 결국에는 내리막으로 치달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위로부터의 북한 변화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파지티브 체인지’를 통한 아래로부터의 북한 변화 가능성을 역설하였습니다.

내용 :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김흥광 대표는 본인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하였습니다. 그는 교수 신분으로 북한에서 생활했지만, 북한 사회 내에서 미래를 찾을 수 없어 2003년 10월에 대한민국에 오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후 8년 동안 통일부 등 남한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일했다고 합니다. 특히 북한의 개혁 및 변화와 북한의 실상을 남한 사람들에게 정확히 전달하고 북한에 있는 동료들과 중산계층에 남한 사회에 대해 알려주는 활동을 4년 동안 하였다고 했습니다.

김흥광 대표는 김정은이 북한 정권을 이양 받는 과정에서 그의 이미지를 김일성의 이미지와 일치시키는 전략을 쓰며 북한정권에 안착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는 북한주민을 동화시키기 위한 목적이며, 짧은 시간에 북한 주민들에게 김정은을 지도자로 숭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김일성의 후광을 이용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흥광 대표는 김정은이 4월 당대표자회와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당과 군의 권력을 모두 장악했다고 판단하고, 현재는 업적 선전을 위한 선전선동에 매진하고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김흥광 대표에 의하면, 북한 주민들도 초기에는 김정은에 대한 희망을 가졌었다고 합니다. 북한정권은 김일성 생일을 기념하여 식량을 배급하였고, 부분 가동하고 있던 공장들을 완전히 가동하였으며, 2월 16일부터 4월 25일까지 하루 종일 전기를 공급하였습니다. 하지만 5.1절(노동절)이 지나면서 북한은 다시 예전의 상황으로 돌아갔고, 김흥광 대표는 이와 관련하여 북한주민들이 새로운 체제에 잠시나마 가졌던 희망이 사라졌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어서 김흥광 대표는 북한 체제의 현황과 변화에 관해서 강연을 이어나갔습니다. 1989년 세계청년학생축전으로 인해, 추락하던 북한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고 25년 동안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주민들의 생활이 궁핍해지고 사회적 동요가 심해졌지만, 김흥광 대표는 체제는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관성을 지닌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체제를 버티고 있는 부분들과 변화를 추동하는 외적, 내적 요인들에 의해서 북한체제는 내리막으로 치달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는 이러한 요인들로 북한체제의 특성, 중국, 시장을 언급하였습니다.

1) 체제: 아직도 북한은 주체사상 아래 전체주민을 하나의 구렁에 맞춰서 일시에 울고, 웃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니고 있다. 체제에 대한 충성심을 강조함으로써 여러 계급들 사이에 경쟁을 통해 존속할 수 있는 기제가 그 근본이다. 하지만 혁명 1세대로부터 2, 3, 4세대로 변화하면서 이러한 계급투쟁의 메커니즘이 원활히 작동하지 않고 있다. 초기에는 혁명의 정신과 혁명에

이바지하는 정도를 기준으로 계급을 분리하여, 계급 간 상호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계급의 분화가 발생하였지만, 4 세대 5 세대에 들어서는 이러한 계급의 분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

2) 중국: 중국은 북한이 붕괴하려 하면 생명줄을 붙여넣어주고, 중국에 대한 북한의 태도에 따라 상벌을 주기도 한다. 실제로, 과거에 단둥에서 백마로 연결된 중유 송유관의 코크를 막아버리기도 하였는데 이때 북한에서는 발전소가 멈추는 등 큰 난리를 겪었었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완충지대로서 북한의 체제를 유지시키는 것이다.

3) 시장: 사람이 먹고 살아가고 나라가 재화를 생산해내고 경제가 운영되는 상황만 보면 북한을 시장 사회주의라고 부르고 싶다. 전체 경제 중 50 퍼센트 이상이 되는 1 급, 2 급, 3 급의 기업소는 국가가 지원, 계획하지만 이들도 시장에 의존하고 있으며, 4 급, 5 급, 6 급 기업소 그리고 의식주의 기본 메커니즘은 시장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의식주와 관련한 것들을 국가의 공급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시장에서 해결하고 있다. 이렇듯 시장이 결국 북한에 변화를 가지고 왔다. 현재 북한은 2003 년도와 또 다른 사회가 되었다.

북한의 체제변화와 관련해서, 그는 중국의 존재 때문에 북한 내 위로부터의 변화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변화는 아래로부터의 변화와 함께 개혁과 개방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언론보도에서 언급한 ‘파지티브 체인지’를 강조하며, 이를 통해서 북한주민들이 스스로 깨우치며 북한사회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강연의 마지막, 김흥광 대표는 북한 사회 내부에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변화에 대해서 언급하였습니다. 그에 따르면 신세대 군인들의 부패는 일상화 되어있고,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계형 범죄는 예전보다 빈번하고 범죄의 종류가 심각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변화는 북한이 그만큼 살기 어려워졌다는 반증이라고 하였습니다. 북한 사회 내 존재하고 있는 잡동사니 이념들은 북한사람들이 외면한지 굉장히 오래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끝으로 그는 김정은 북한정권에 대해서, 겉으로는 김정은의 등장 이후 북한이 김정은의 나라처럼 보이지만, 북한은 시장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나라로 변화하고 있다고 북한의 현황을 평가하며 마무리 하였습니다.

<< 강연: 북한, 결국 변할 것인가? 김정은 정권의 강한 현상유지 편향 >>

한병진(계명대학교)

요약: 계명대학교 한병진 교수는 북한의 체제 변화의 가능성에 대해 중장기적 전망을 내놓으며, 이러한 이유는 김정은 정권의 강력한 현상유지 편향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김정일 정권보다 김정은 정권으로 들어와서 북한 엘리트가 그 어느 때보다 유리한 정치적 입지를 누리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북한의 현상유지 편향은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내용:

계명대학교의 한병진 교수는 북한의 엘리트 계층이 ‘필승불패’로 북한의 정권을 지키려는 이유와 김정은 정권의 편향 지속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는 김정일 정권 보다 김정은 정권으로 들어와서 북한 엘리트가 그 어느 때보다 유리한 정치적 입지를 누리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북한의 현상유지 편향은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교수는 당분간 북한의 변화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현상유지 편향은 적화통일의 야욕을 버린 이후 더욱 분명해졌다고 보고, 이 현상유지 편향은 아버지 김정일 정권에서보다 현 김정은 체제에서 더욱 강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한병진 교수는 북한정권의 지키는 능력은 뛰어나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구조적으로 강한 내구성을 지니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주체사회주의 발전전략은 북한을 외부와 고립된 강한 군사력과 행정적 제도적 능력을 지닌 강한 국가로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중소분쟁, 남한과 미국과의 대치 등 외부적 위협과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강력한 군사력과 빈곤한 경제라는 역설적 상황을 만들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외부의 군사적 위협을 억지할 수 있고 내부의 저항을 잔혹하게 분쇄할 수 있는 북한 국가는 정권 유지에 대한 엘리트의 자신감을 공고히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교수는 김일성의 성공적인 숙청과 개인우상화는 당 독재 대신 가신 중심의 개인독재와 소규모 지배연합 독재정권을 만들었다고 말하면서, 이러한 정권에서 독재자는 엘리트의 충성을 수월하게 확보할 수 있다라고 보고, 소규모 엘리트의 특권적인 삶을 보장할 만큼 충분한 자원과 환경을 지니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병진 교수는 엘리트의 노령화 역시 현상유지에 대한 이해를 제고한다고 보고, 이들 엘리트는 단기적 불확실성과 위험을 감수하고 장기적으로 이익이 발생할지도 모를 위험스러운 개혁을 원하지 않는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유지를 원하는 엘리트의 자신감과 엘리트의 공고한 협력게임이 북한을 지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현상유지 편향은 김정은 정권 들어 더욱 강해지고 있으며, 김정은 정권의 북한 엘리트는 그 어느 때보다 유리한 정치적 입지를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없고, 무엇보다 북한 주민의 지지가 예전과 달리 현저히 낮다는 점에서 김정은의 개인권력은 김정일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라고 보고, 소규모 지배연합에 기초한 정권에서 독재자의 개인권력이 약하다면 엘리트 들은 현상유지를 이전보다 더욱 선호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강화된 엘리트의 정치적 특권은 현상유지 정책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시장개혁은 시장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으로 이는 전체주의 통제와 감시를 상당히 포기해야 가능한, 즉 부와 권력 사이에 상쇄관계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중국 엘리트가 시장개혁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이유는 권력의 상실에 비해 부의 증가가 훨씬 컸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특권을 시장에서 이윤획득의 기회로 전환시키면서 중국 공산당 엘리트는 후기전체주의에서 권위주의로 중국의 정치적 연착륙을 허용했지만, 북한에서 권력의 잠식을 보상할 충분한 부가 시장개혁으로 발생하리라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